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 황금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종교, 도덕, 철학에서 발견되는 원칙 중 하나가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은 ‘타인이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하라’라는 금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따른 황금률은 타 종교의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제1독서(탈출 22,20-26)는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율법)을 설명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구약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방인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며 다른 이방인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내용과 이어서 과부, 고아, 채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이 소개됩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는 속담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제2독서(1테살 1,5-10)는 테살로니카의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곳곳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표현하기 위해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테살로니카 1서는 신약성경 중 가장 먼저 쓰인 글로서,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기쁘게 지내며 이웃에게 좋은 표양이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연중 제30주일 복음(마태 22,34-40)은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라는 바리사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는 구약성경의 율법들을 인용하시며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5)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레위 19,18)라는 것이 그분의 답변인데, 이 두 계명을 가리켜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은 결국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지 성당에 와서 바치는 미사만이 하느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와 사랑 실천인지,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빼면 ‘앙꼬 없는 찐빵’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나의 의무보다는 나의 권리를 위해 큰소리치고, 내가 이웃에게 베풀지 않은 사랑과 배려에는 무관심한 채 내가 받은 피해에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사랑은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은총입니다. 하느님과 이 소중한 사랑 체험에 힘입어, 우리는 일상이 되어 버린 고통의 시기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황금률로 채워가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사랑의 황금률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9)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단풍이 곱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웃을 향할 때 나에게 생명의 길과 행복을 찾는 일도 열릴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바라본다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 참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